

*The Virginia Woolf Society of Korea Newsletter***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도시샤 대학에서의 한일공동 학술대회

손영주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인 것만 같던 지난 3월 22일, 2박 3일로 한일 버지니아 울프 공동학술대회를 다녀왔다. 이틀 넘게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수가 없었던 모양인지 떠나기 사흘 전까지 1박 2일의 일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일본엔 난생 처음 가는 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 때문인지 김영주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야 비로소 환전조차 해두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와 곰곰 생각해보니 이러한 나의 착각과 방심은 온전히 울프 학회 탓이다. 울프 학회 선생님들과 함께 간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던 모양이다.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 그러면서도 가장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가니, 떠나기 직전까지 발표문만 가지고 끙끙댈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공항에서 오전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분 전에 도착했다. 그런데도 역시나 내가 끌썬다. 허둥대며 나타난 나와 달리 너무나 말끔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박희진, 전상범 선생님을 비롯한 십 여 분의 선생님들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신다. 도무지 지각이나 태만이라고는 모르는 선생님들. 그러니 어딜 가든 마음이 놓일 수밖에. 흰칠한 키에 근사한 미모(?), 유창한 일본어에 해박한 역사지식, 게다가 유머감각까지 갖추신 전상범 선생님의 진두지휘로 무사히 교토에 도착했다. 첫날 저녁에는 도쿄로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일본 천황의 거주지였던 교토 고쇼를 둘러보고 이튿날 도시샤 대학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뉘쎈(!) 학회를 마치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20여명의 일본인 교수들과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게이샤의 거리인 기온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오진숙 선생님의 남편되시는 전상인 선생님의 자상한 해설이 곁들인 니조 성 구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보다 더 알뜰한 공부와 여행이 있을 수 있을까. 갈 때의 피로감은 뿌듯함으로 바뀌어있었다.

이번 학회는 1997년 플리머스에서 있었던 버지니아울프 학술대회에서 일본인 메구미 교수가 박희진 선생님의 발표와 인간적인 매력에 감동을 받아 훗날 꼭 함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은 약속이 지난 2010년 한국 버지니아울프학회에서 일본버지니아울프학회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일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고 이번 학회는 일본학회측이 다시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삼사십여명의 한일 울프 학자가 모여 울프 연구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는 아주 진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애초에 국제 학술대회로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회공고문을 보고 찾아온, 프랑스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의 귀한 참여도 있었다. 그 학생을 통해 중국에서 울프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지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프랑스와 일본을 중형무진하며 향학열을 불태우는 그 모습에 참으로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언젠가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울프학회를 기

확하고 싶은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일본 올프 학회는 30년 전통에 15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 년에 네 차례 학술대회를 하는데 박사과정생들은 이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이 삼십여명의 교수들의 혹독한(?) 질문세례를 받은 후 학술지에 실을 더 좋은 글로 다듬어낸다고 한다. 일본 교수들이 “야비한”(mean) 질문 말고 “의미있는”(meaningful) 질문을 하겠노라는 농담을 던지는 것이 재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공부에 대한 간간함이 배어있는 뼈있는 말들이었다. 일단 영문학을 하면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유학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게 되는 우리의 대학현실과 달리, 자생적으로 후학을 길러내겠다는 일본 특유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약간의 부러움도 느꼈다. 물론 이것은 지도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대학원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고, 요즈음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해외로 유학을 권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서구 학자들의 연구뿐 아니라 자국 학자들의 논문과 저작들을 빈번히 인용하고 있는 일본교수들의 논문들은 인상적이었다. 서구 및 아시아와의 폭넓은 교류는 국내에서 내실있는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밀거름으로 할 때 더 알찬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귀염 받은 일도 별로 없는데, 어딜 가든 도무지 기가 죽질 않아!”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전상범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돌아온 후 일본측으로부터 박희진 선생님의 특별 강연에 대한 감동과 더불어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박희진 선생님처럼만 될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한 일본인 교수의 이메일이 왔다. 30년 전통과 150명이라는 회원수가 부럽지 않은 순간이었다.

영문과 건물 입구에 운동주와 정지용 시비가 나란히 놓여있어 더욱 정이 가는 도시샤 대학에서의 학술대회는 그렇게 끝났다. 선생님들과 한껏 정이 들어버렸고, 공부 욕심은 턱없이 커져 버렸다. 현미경처럼 섬세하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는 눈을 갖고 있었던 버지니아 올프, 그녀의 그런 점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겐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고 감히 말해버리고 싶은 밤이다.

연 구 편

☞ 작품 및 비평서 번역사업

- 2011년 6월 3일 울프의 *Collected Essays*의 발췌 번역서 1집인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1』이 솔 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번역서 2집을 기획 중입니다. 번역 관련하여 매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버지니아 울프 총서 사업

- 2010년 12월 동인출판사를 통해 버지니아 울프 논문집인 『버지니아울프 학회 총서 제1집』이 출판된 이후, 2013년 4월 『버지니아울프학회 총서 2: 버지니아 울프 2』가 동인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학회 선생님들이 여러 학회지에 발표하였던 13편의 논문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 총서 발간을 위하여 좋은 논문 많이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박은경(pek1009@cnu.ac.kr / 010-4765-3503)

☞ 2012년 12월 14일 한국영어영문학과 연찬회

1부 대학원생 세션: 사회 및 총평: 박은경(Eun Kyung Park, 충남대학교 교수)

발표 1: 한솔지(Solji Han, 서울대학교)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감각과 감정의 문제"(The Problem of Sense and Emotion in *Mrs.Dalloway*)

토론: 김지혜(Jihye Kim, 서울대학교)

발표 2: 류주연(Joo Yeun Ryu, 가톨릭대학교)

"“1910년 12월 경 인간성이 변했다”: 『제이콥의 방』"("In or About December, 1910, Human Character Changed": *Jacob's Room*)

토론: 황성희(Sung-hee Hwang, 성균관대학교)

발표 3: 서미선(Mi-Sun Seo, 국민대학교)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근거한 버지니아 울프 읽기: *A Room of One's Own*과 *Three Guineas*를 중심으로"(Reading Virginia Woolf Based on Derrida's Deconstruction: Mainly Focused on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토론: 김윤정(Yun Jung Kim, 국민대학교)

2부 본 세션: 사회: 서지문(Ji-moon Suh, 고려대학교)

발표 1: 김 정(Jung Kim, 가톨릭대학교)

"제이콥의 아바타들: 울프 작품 속의 남성 인물들"(Jacob's Avatars: Male Characters in Woolf's Novels)

토론: 임현주(Hyun Joo Lim, 덕성여자대학교)

발표 2: 정명희(Myung-Hee Chung, 국민대학교)

"『제이콥의 방』: 의식의 반투명한 외피"(*Jacob's Room*: A Semi-transparent Envelope of Consciousness)

토론: 이귀우(Guiwoo Lee, 서울여자대학교)

발표 3: 손현주(Heon-Joo Sohn, 서울대학교)

"쇼핑에 관하여; 1920년대 런던의 버지니아 울프"(On Shopping: Virginia Woolf on the 1920s' London Streets)

토론: 박형신(Hyung Shin Park, 경북대)

☯ 정기 학술발표회

- 매년 4월 열렸던 정기 학술대회가 이번에는 3월 23일, 일본과의 연합학술대회로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버지니아 울프학회와의 우의를 다지고 울프 연구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Japan-Korea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3

"Reading Woolf in the 21stCentury"

March 23rd, 2013

Doshisha University (Conference Room, Neisei-kan 5F, Imadegawa Campus)

10:00-12:00 Session I

<Narrative/Writing>

Chair: Hogara MATSUMOTO (Sophia University)

Kanako ASAKA (Osaka Ohtani University)

Subjective Point of View in Free Indirect Discourse--The Use of Third-Person Pronouns and Past Tense Verbs in *Mrs. Dalloway*

Soonku LEE (Pyeongtaek University)

Comparison of the Art Theories of Wilde and Woolf through Analysis of Their Essays

<Woolf and the 21stCentury>

Chair: Erika ASO (Aoyama Gakuin University)

Ken HATAKEYAMA (Tohoku Gakuin University)

Gunpowder and the Great War in *To the Lighthouse*

Heon-Joo SOHN (Seoul National University)

Virginia Woolf in the Waves of Multimedia Culture

13:45-16:00 Session II

Chair : Yuko ITO (Chubu University)

<Symposium: Woolf Meets Others>

Youngjoo KIM (Sogang University)

The figure of the Jew: Virginia Woolf and Ethnographic Imagination

Yukiko KINOSHITA (Kobe Women's University)

Virginia Woolf's Far-Eastern Aesthetics: Virginia Woolf, Roger Fry, and Kakuzo Okakura

Youngjoo S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Earthenware Pot and Mrs. Brown: Virginia Woolf's Things and Beings

Yuko ITO (Chubu University)

Russian Ballet and Body Movement in *The Waves*

16:15-17:00 Special Lecture

Chair: Megumi KATO (Tokyo Gakugei University)

Professor Hee-ji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Between 'Internal Monologue' and 'Sous-conversation': the Worlds of Virginia Woolf and Nathalie Sarraute"

☞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회 소식

- 2013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술대회 (The 22th Annual Conference on Virginia Woolf)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주제: Virginia Woolf and the Common(wealth) Reader

일시: June 6-9, 2013

장소: Coast Plaza Hotel and Suites

1763 Comox Street Vancouver, BC, Canada

(Hosted by Simon Fraser University)

- Other Virginia Woolf Conferences and Sessions:

Louisville Conference on Literature and Culture since 1900: The 41st Annual Louisville Conference on Literature and Culture was held on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Campus February 21-23, 2013. Th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 was pleased to host its eleventh consecutive panel:

Panel Title 1 : Virginia Woolf Miscellany (by Organized by Kristen Czarnecki, Georgetown Colleg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

Paper 1: They pelt me now': Virginia Stephen's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Voice

By: Beth Rigel Daugherty, Otterbein University

Paper 2: The muffins is keepin' 'ot in the liberry': Intellectual Birth Control in Orlando

By: Aimee Armande Wilson, Florida State University

Paper 3: Orgasm and the Loud Disruption of Society: Virginia Woolf and the Body

By: Emily Whitmore, Eastern Illinois University

Paper 4: Let [Her] Eat [That Pink] Cake!' Public Eating & Appetite in Virginia Woolf's Novels

By: Catherine R. Mintler, University of Oklahoma

Panel Title 2: Virginia Woolf's Life-Writing/Light Writing (by organized Lauren Short, University of Louisville)

Paper 1: Lighthouse: Re-Photography, Time and Perception in Woolf's Novel

By: Emily Anderson, University at Buffalo

Paper 2: Futurity Imagined during War: Virginia Woolf's Between Acts and Trauma

By: Karolyn Steffen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aper 3: Woolf's 'Idiot': Intellectual Disability as Aesthetic Shock in Between the Acts

By: Rebecah Pulsife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울프 독회 안내

- 지난 23호 소식지 이후의 독회 모임은 에세이 2집 발간을 위해 각 선생님들이 번역한 원고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7일: 이귀우 ("Jane Austen," *Collected Essays Vol. I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pp. 144-54)

2013년 2월 23일: 박은경 ("The Russian Point of View," *Collected Essays Vol. I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pp. 238-46)

2013년 4월 13일: 박은경 ("The Russian Point of View," *Collected Essays Vol. I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pp. 238-46)

2013년 6월 1일: 손영주 ("Congreve's Comedies," *Collected Essays Vol. I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pp. 76-84) 예정.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독회가 있습니다만, 2013년 상반기에는 사정상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 계시는 손현주 선생님 덕분에 정기적으로 인문학 연구원에서 10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5월에는 모임이 없으며, 위에 공지한 바와 같이 6월 1일 토요일에 손영주 선생님의 번역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고대합니다.

☞ 일반 독자를 위한 강연

- 2004년부터 토탈 미술관 주관 하에 우리 학회가 9년 동안 문학 강연을 진행 해왔습니다만, 2012년 제 21기 토탈 미술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문학 강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연 전체의 운영을 도맡아 수고해주신 김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반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일곡논문상”

- 일곡 논문상 논문심사위원회는 보통 1년 동안(전해 3월 1일부터 당해 2월 28일까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울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편 집 편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 『제임스조이스저널』 겨울호(제18권 2호)가 영문판으로, 2012년 12월 31일 출판되었습니다. 제 19월 1호는 6월 30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마감은 2013년 5월 15일입니다.
- 보내실 곳: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편집 김금주, kumjyonsei@hanmail.net/010-3253-4707)
- 주석은 본문내주 방식을 지켜주십시오. 각주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 abstract를 포함해서 영문은 반드시 원어민의 검토를 거친 뒤 첨부해 주십시오.
(조이스저널이 등재지가 된 이후 학진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게 될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 인용문헌의 기재 양식은 MLA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 주제어(Key words)는 5-7개의 영어 단어를 초록 뒤에 기재해 주십시오.
- 심사료는 6만원입니다. (심사료는 3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 게재료는 일반 투고자: 10만원 / 연구비지원을 받은 투고자: 20만원입니다.

정 보 편

- 울프 작품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편의를 드리고자 학회 홈페이지(www.woolf.or.kr)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의 홈페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울프관련 해외사이트들을 추천 사이트란에 링크해두었으니 활

용 부탁드립니다.

- 2012년 9월 올프학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올프가 머물던 거처를 중심으로 꾸며보았으니 가끔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관련하여서는 담당 신광인 선생님(kishin@ cju.ac.kr / 010-5373-9282)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올프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올리시면 본 학회 고문이신 김정 교수님, 정명희 교수님께서 가능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섭 외 편

이순구 선생님께서 새로 섭외를 맡아 수고해주십니다.

재 무 편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본 학회는 올프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원가입은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회원과 일반회원 간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학회의 사무 차원에서 편의상 둔 구별입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총무 박은경(총무편 참조)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평생회비를 입금하실 때 이름 뒤에 꼭 “(평생)”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1006-801-356387) 예금주: 손현주 (올프학회)

- 그동안 연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기부 또한 환영합니다.
- 올프 독회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한학기당 5만원씩 회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무 편

- 3월에 열린 일본과의 연합학술대회에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박희진 선생님께서 강연료 전액을 학회에 회사해 주셨습니다. 학회를 위해 늘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박형신 선생님께서 일본과의 연합학술대회 이모저모를 촬영하고 CD로 제작하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원진 개편

- 지난 2년 동안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던 진명희 선생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월 1일자로 새 회장으로 이귀우 선생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이순구 선생님께서 섭외를, 박형신 선생님께서 연구를 함께 맡아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레터

- 뉴스레터는 4월과 10월, 연 2회 발간됩니다.
- 연간 계획과 행사 소식, 회원 동정 등을 종합적인 보고 형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알차고 신선한 뉴스레터를 위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전화,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총무: pek1009@cnu.ac.kr / 010-4765-3503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연구	김영주(서강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손영주(서울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임현주(덕성여자대학교)
감사	정덕애(이화여자대학교)	편집	박형신(경북대학교)
	진명희(한국교통대학교)		
회장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홍덕선(성균관대학교)	김금주(연세대학교)
부회장	오진숙(연세대학교)		조애리(카이스트)
총무	박은경(충남대학교)		
재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정보	신광인(청주대학교)
섭외	이순구(평택대학교)		